실질적 진전 없는 메세지에 신뢰 잃은 미 행정부, 홍해 해상까지 긴장↑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 hyseong@ls-sec.co.kr

중동발 위험회피 심리 지배적인 가운데 증시 약세

- 미 증시는 DOW -1.73%, S&P500 -1.67%, NASDAQ -2.15% 하락. 필수소비재, 금융 하락 주도, 에너지, 임의소비재는 상승
- 루비오 미 국무부장관은 몇 주 내 적절한 시기에 대이란군사작전 마무리를 시사하며, 지상군 없이도 모든 목표 달성 가능하다고 발언. 다만 실제 중동 상황의 개선이 부재한 상황에 시장은 위험회피심리 우세
- 달러인덱스 99.98, 국채금리 혼조 10Y 4.440(+2.6bp), 2Y 3.916(-6.8bp). 금 +2.6%

홍해 항로까지 봉쇄 우려 확대, 국제유가 추가 상승 경계

- 국제유가 상승 WTI $99.6(+5.5%), Brent $112.6(+4.2%). 이란에 우호적인 중국 선박 2척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했고, 태국 선박은 해협에서 충돌사고에 의한 좌초
- 이스라엘은 이란 제철소 뿐만 아니라 핵시설 2곳 공습 등 이란 본토 공격 강화. 미군의 중동에 병력 1만명 추가 파병 검토 소식도 지상전 우려 확대
-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, 유럽향 원유 수출로인 홍해 봉쇄 우려 확대. 유라시아그룹은 홍해가 봉쇄되면 유가는 $150 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. 아거스는 전쟁의 다중전선화에 따른 리스크 확대는 이미 높아진 유가에 추가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진단

인플레 우려하나, 여전히 동결 기조 시사하는 연준 위원들

- 바킨 총재는 중동 분쟁이 인플레 불확실성을 키워 경제 전망을 안갯속에 가뒀다고 진단. 다만 금리 정책은 명확한 데이터 신호가 나타날때까지 동결을 유지하는 쪽을 지지
- 제퍼슨 부의장도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을 언급했으나, 에너지 순수출국으로서 투자·고용 증가의 상쇄효과에 주목. 현재 금리가 중립수준에 근접해 있어 향후 추가 조정에 신중한 입장
-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56.6→53.3, 컨센 하회. 소비자기대지수 56.6→51.7, 1년 기대인플레이션 3.4%→3.8%

특징주: 엔트로픽발 우려 재점화, 사이버보안주 하락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PANW	팔로알토 네트웍스	-6.0%	앤트로픽의 시스템 설정 오류로 유출된 차세대 AI 모델 '클로드 미토스'가 기존 방어 체계를 압도하는 사이버 공격 역량을 갖춘 것으로 드러나며 크라우드스트라이크(-5.9%) 등 사이버보안주 일제히 급락. 시장은 보안 업계의 대응 속도가 AI 발전 및 악용 위협을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 경계. 다만 업계 내부에서는 AI 인프라 확산에 따른 보안 수요의 구조적 증가가 중장기적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
ETR	엔터지	+6.8%	메타의 루이지애나 신규 데이터센터 가동 위한 대규모 전력 인프라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주가 강세. 가스·원자력·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에너지 믹스 구축 계획이 구체화. 계약은 메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여, 비용 절감 및 수익 개선 효과 창출 가능. 이전 발표된 $650M의 혜택과 합하면 같은 기간 총 고객 절감액은 $2.65B에 달할것으로 추산
NFLX	넷플릭스	+0.1%	미국 내 구독 요금제 인상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. 미국 내 스탠다드 요금제는 월 $1, 광고 없는 스탠다드 및 프리미엄 요금제는 각각 $2씩 인상됨. 특히 스탠다드 요금제의 인상률은 13%로 요금제 중 가장 높은 폭 기록. 이번 인상은 가격결정력을 토대로 고가 요금제에서의 수익 극대화와 광고 요금제로의 유입 촉진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이원화된 전략으로 평가
AZN	아스트라 제네카	+2.7%	만성폐쇄성 폐질환(COPD) 치료제 '토조라키맙'이 임상 3상에서 1차 평가지표를 달성, COPD 환자의 급성 악화 감소 효능을 입증했다는 소식에 주가 강세
U	유니티	+13.5%	1분기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, 비핵심 사업인 광고 및 게임 퍼블리싱 부문의 철수와 매각을 통한 포트폴리오 재편 계획을 발표. 수익성 개선 의지에 주가 강세